

과감한 연출 가능... 드라마 속 가상도시 늘어난다



‘무법변호사’ ‘나쁜녀석들’

배트맨이 활약하는 DC코믹스 속 가상 도시 ‘고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범죄가 발생한다. 마피아부터 야쿠자까지 온갖 거물급 흉악범이 몰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최근 국내 드라마에서도 고담 못지않은 다양한 범죄도시들을 만날 수 있다.

트렌디한 장르극들을 선보이는 OCN 마니아들이라면 ‘서원’이라는 지명이 익숙할 것이다.

DC코믹스에서 고담이 여러 작품에 등장하듯 서원시도 ‘나쁜녀석들’ 시리즈와 ‘38사기동대’에 함께 배경으로 등장, 두 작품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올 초 종영한 ‘나쁜 녀석들2’(악의 도시)에서 서원시는 몇 년 전 아시안 게임이 개최됐을 정도로 번성하던 도시지만, 극빈층도 많고 유흥가에서는 마약이 아무렇게 없게 오가는 곳으로 묘사됐다.

경찰들은 조직폭력배들의 온갖 악행에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모른 척 눈감아준다. 시장인 배상도(송영창 분)와 지역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그들의 뒤를 봐주는 덕분이다.

2016년 방송한 ‘38사기동대’에서 주인공들의 활약으로 고역 탈세자이자 단단계 사기범에게 휘둘린 시장이 물러났는데도 서원시는 여전히 범죄도시다. ‘나쁜 녀석들’에서도 악인들이 등장했지만, 그게 악의 완전한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악이 자리 잡은 곳에서는 언제든 썩은 결가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OCN 작품들은 보여준다.

‘나쁜...’ 서원시·‘무법...’ 기성시 등 지역 이미지 훼손 걱정 없어 표현 편리

과장된 만화 같기도 하지만, 극이 현실감을 지닌 까닭은 서원이라는 도시가 꽤 구체적으로 묘사된 덕분이다. 작품들 속 서원시는 부촌인 인북동, 가장 낙후한 인서동, 조용한 인중동, 조폭들이 유흥가를 접수한 인남동, 재개발 단지인 마석동 등 하위 행정구역들도 실감 나게 담겼다.

시즌2 방송을 앞둔 OCN ‘보이스’는 ‘성운’이란 가상 도시가 배경이다.

성운시 역시 살인부터 강간까지 각종 강력범죄가 판을 쳐 전국에서 흉악범죄가 가장 잦은 곳이지만 성운지방경찰청의 범죄 검거율은 전국에서 꼴찌다. 그러나 남다른 청각 능력이 있는 강권주(이하나)가 112신고센터장으로 오면서 조금씩 변화한다.

OCN의 기운을 이어받아 다양한 장르극을 선보이는 tvN에서도 가상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다. 2016년작 ‘시그널’ 속 인주시와 최근 시청률 상승세를 탄 ‘무법변호사’ 속 기성시가 대표적이다.

‘시그널’ 인주는 김은희 작가의 다른 작품 ‘유령’(2012, SBS)에서도 등장했다. ‘유령’ 속 인주는 기업 주도 조직범죄가 판치는 곳으로 묘사됐고, ‘시그널’에서는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연쇄살인, 성폭행들이 만연한 도시로 그려졌다.

‘무법변호사’ 속 기성 역시 이중적인 얼굴을 지닌 향판(지역판사) 최문숙(이혜영)부터 극악무도한 조폭 안오주(최민식)까지 위아래 할 것 없이 썩은 곳이다. 기성은 문자 그대로는 비단 기(綺)에 성(城), 비단 같은 도시지만 반어적이다. 시장, 판사, 기업인, 경찰 등 모두가 악취를 풍긴다는 점에서 ‘38사기동대’와 ‘나쁜녀석들’ 서원시를 연상케 한다.

이렇듯 범죄를 주요 소재로 하는 장르극들이 가상 도시를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 가지 ‘편리함’ 때문이다.

선과 악 구도가 뚜렷해야 결말에서 쾌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르극 특성상 제작진은 배경이 되는 사회와 악인들을 가능한 한 악하게 묘사해야 하는데, 실제 지명을 사용하면 특정한 지역 명에 훼손 논란이 휩싸일 수 있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20일 “실제 도시를 배경으로 하면 지역 명에 훼손 등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시청자 역시 폐쇄적인 가상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게 극을 받아들이는 데 편리하다”고 말했다.

영화 ‘곡성’이 대표적이다. 곡성은 우는 소리 ‘곡성(哭聲)’이지만, 그 활영지가 공교롭게도 전남 곡성(谷城)인 까닭에, 전남 곡성 현지에서는 영화가 뒷색운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인간됨을 쓴다.

그런 점에서 만화적 요소를 가미해 극적인 통쾌함을 더하는 최근 장르극에서는 DC코믹스 속 고담 시터를 연상케 하는 가상 지명들은 여러 모로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연합뉴스



이창동 감독 ‘버닝’ 본상 수상 불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만비키 가족’이 제71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영화제 기간 호평을 받으며 수상이 점쳐졌던 이창동 감독의 ‘버닝’은 수상이 불발됐다.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칸영화제 폐막식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받아들였다.

이 작품은 할머니의 연금과 조도독질로 살아가는 한 가족이 홀로 추위에 떨고 있는 다섯 살 소녀를 데려와 가족으로 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주로 따뜻한 가족영화를 만든 그는 신작에서 다시 한 번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심사위원 대상은 미국 스파이크 리 감독의 ‘블랙클랜스맨’에게 돌아갔다. 1978년 백인우월주의 집단 ‘쿠클럭스클랜(KKK)’에 잠복해 비밀 정보를 수집하고 이들의 범죄를 막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경찰의 실화를 그린다.

스파이크 리 감독은 1989년 ‘뚝배기 살아라’(1989) 이후 27년 만에 경쟁 부문에 진출해 트로피를 안았다.

심사위원상은 레바논 출신 나딘 라비키 감독의 ‘가버나움’이 수상했다. 폴란드 출신 파벨 포리코브스키 감독은 1950년대 냉전 시기에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두 사람의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폴드워’로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여우주연상은 카자흐스탄 출신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감독의 영화 ‘아이카’에서 주연을 맡은 사말 예슬리야모바가 됐다. 이 영화는 직업도 없고, 지벌 방조 차 없는 주인공 아이가기 출산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가 다룬다.

남우주연상은 ‘도그맨’(마테오 가로네 감독)의 마르첼로 폰테가 수상했다. 이탈리아의 한 마을을 무대로 개 미용사 마첼로와 폭력적인 전직 복서 시몬느의 추종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각본상은 이탈리아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라자로 벨리체’와 자파르 파히니 감독의 ‘쓰리 페이스스’가 공동 수상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애 웬수들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징비록(재) 50 UHD 숲터(재)	00 우리가 만난 기적(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우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FIFA 월드컵 러시아 2018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정식		00 12 MBC 뉴스 25 검법남녀 비하인드(재) 30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울광장 출정식	00 SBS 12뉴스 30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출정식
1	20 팔도방송(재) 50 연중기획-빛고을 행복아카데미	00 다큐멘터리 3일(재)	25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험대 2 (재)	30 점수! 무비월드(재)
2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05 좌충우돌 만국 유람기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사이닝스타 30 뽀뽀뽀 모두가 놀자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살림하는 남자들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애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공지락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색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11	00 KBS 뉴스라인 40 다시보는 북한문화유산 4부작	10 안녕하세요	10 2018 가정의 달 특집 휴먼다큐 사랑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역사저널 그날(재)	35 비바 K리그	10 스포츠 다이아리 25 가요베스트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동돌기행 -마음의 가족 캄보디아 코끼리)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평양냉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왕스2 08:00 덩동영 유치원1~2 08:30 허풍선이 과학소(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점오누스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3:00 다큐 오늘 (부기스 속의 거대한 배) 13: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3:40 배워서 남줄렘(재) 14:30 뚝딱맨
	15:0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낚장고 나라. 코코몽 16:15 올감한 소망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마사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스파이더맨 19:30 EBS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그 섬에 가면 인도네시아 1부 발리에서 생긴 일> 21:30 한국기행 <우리 같이 살까? 1부 지리산에 살아볼래요?> 21:50 EBS 다크프라이미 <맛의 배신 1부 건강을 부르는 향> 22:45 메디컬 다크-7요일 23:55 배워서 남줄렘 24:45 지식채널e 24:50 세계의 드라마 <포 더 피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1일(음 4월 7일 癸丑)	
子	36년생 소중한 것들이 줄줄 새고 있느니라. 48년생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격이다. 60년생 망설이지 말고 실행하라. 72년생 숨이 막힐 정도로 깜짝 놀란만한 일이 생기리라. 84년생 주관에 치우친다면 공든 탑도 쉽게 무너진다. 행운의 숫자 : 72, 36	午	42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54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66년생 가볍게 넘겨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78년생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이 낫다. 90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났겠다. 행운의 숫자 : 75, 38
丑	37년생 직접적인 것이 제일 실속 있으리라. 49년생 한 순간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라. 61년생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73년생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 85년생 전혀 접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48, 49	未	43년생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잘 해야 한다. 55년생 가다듬고 살펴야 추진력을 갖게 된다. 67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를 낳는다. 7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곤경에 빠진다. 91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만 발전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42, 24
寅	38년생 확신이 서면 과감하게 실행해도 무방하다. 50년생 목적이 부합하는 구상과 행보만이 성사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다. 62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라. 74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발전을 이끈다. 86년생 변수를 고려하라. 행운의 숫자 : 52, 53	申	44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라. 56년생 단속적이어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 68년생 함심으로써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0년생 파격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92년생 벌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11
卯	39년생 넘지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해야만 한다. 51년생 내버려두면 악화 일로를 걷게 되리라. 63년생 양보하지 않으면 손해다. 75년생 부수적인 것은 차치하고 핵심에 집중해야 할 판국이니라. 87년생 유경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라. 행운의 숫자 : 74, 48	酉	45년생 동일한 현상이 반복되면서 상승 기류를 마련한다. 57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갈 길이 정해질 것이다. 69년생 확실히 대처한다면 막을 수 있다. 81년생 거시적인 관점에서 설정하라. 93년생 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85, 78
辰	40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52년생 무리한다면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충분하다. 64년생 대중 넘기지 말고 일일이 확인하라. 76년생 과욕하지 말라. 88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6, 94	戌	34년생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니라. 46년생 역풍이 불어올 수도 있다. 58년생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70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약화 되리라. 82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편안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2, 04
巳	41년생 활용해야 할 때이다. 53년생 벽을 치면 대토보가 올리는 법이다. 65년생 친분을 가중하여 사익을 도모하려는 이가 보인다. 77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다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89년생 포괄적인 범위의 설정이 더 실용적이나. 행운의 숫자 : 03, 23	亥	35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만함만 나타난다. 47년생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59년생 고려해 보는 것이 실용적이다. 71년생 어떠한 희생을 치르면서 임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83년생 우선 가장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7, 45